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2 주차 (롬 8:9-8:18)

(2016년 2월 4일 - 2018년 2월 10일)

(제5권 23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2 월 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1) (주일)

오늘의 본문 (롬 8:9~11)

- ⁹ Ὑμεῖς δὲ οὐκ ἐστὲ ἐν σαρκὶ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ἀλλ' ἐν πνεύματι, (영 안에 있다)
 εἴπερ πνεῦμα θεοῦ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εἰ δέ τις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 οὐκ ἔχε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οὗτος οὐκ ἔστιν αὐτοῦ. (그는 그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 ¹⁰ εἰ δὲ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τὸ μὲν σῶμα νεκρὸν διὰ ἁμαρτίαν (사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τὸ δὲ πνεῦμα ζῶν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그러나 영은 의로움으로 인해 산 것이다)
- ¹¹ εἰ δὲ τὸ πνεῦμα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ἐκ νεκρῶν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만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ὁ ἐγείρας Χριστὸν ἐκ νεκρῶν ζῴοποιήσει καὶ τὰ θνη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이가 너희 죽을 몸 역시 살게 할 것이다)
 διὰ τοῦ ἐνοικούντος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ν ὑμῖν.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세 문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한다.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헌금을 하며, 갖가지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행하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느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며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올바른 행위나 어떤 신비한 은사들을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로 믿고 있다. 물론 그런 생각에도 일리가 있고 필자도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단언컨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세리는 백성을 탄압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반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 세리의 손을 들어 주셨다. 왜 그랬을까?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은 어땠는가? 그들은 누구나 갈망했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삶이 곧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영을 인간이 강제로 끌어다 곁에 둘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인종, 과거의 삶의 궤적과는 상관없이 그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종교적 열심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속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술회했다.

“⁴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⁴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유대교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모세 오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종교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행동 지침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실천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죄란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이면에 더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율법을 어기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심각한 죄는 자기 힘으로 의로움에 다다르려고 애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 왔음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뭉가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면 팔과 다리의 근육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자유다. 감빡한 골방에 갇혀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빛 가운데로 나와 사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얽매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⁴³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⁴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⁴⁵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⁴⁶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⁴⁷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3-17).

모세의 글은 얼굴을 덮은 수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율법에 얽매이도록 만든다. 수건이 우리 눈을 덮고 있는 한 진리를 깨닫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게 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맛보게 된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유함이 없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영에 속한 자입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 (2)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9~11)

- ⁹ Ὑμεῖς δὲ οὐκ ἐστὲ ἐν σαρκὶ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ἀλλ' ἐν πνεύματι, (영 안에 있다)
εἴπερ πνεῦμα θεοῦ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εἰ δέ τις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 οὐκ ἔχε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οὗτος οὐκ ἔστιν αὐτοῦ. (그는 그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 ¹⁰ εἰ δὲ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τὸ μὲν σῶμα νεκρὸν διὰ ἁμαρτίαν (사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τὸ δὲ πνεῦμα ζωὴ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그러나 영은 의로움으로 인해 산 것이다)
- ¹¹ εἰ δὲ τὸ πνεῦμα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ἐκ νεκρῶν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만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ὁ ἐγείρας Χριστὸν ἐκ νεκρῶν ζῶσιν καὶ τὰ θνη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이가 너희 죽을 몸 역시 살게 할 것이다)
διὰ τοῦ ἐνοικούντος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ν ὑμῖν.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영 안에 있다. 사실 영 안에 있다는 말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동의반복이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영역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럼자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다. 그렇기에 구원은 단지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을 죽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고 설명한다. 에베소서 2장 1장~7절을 읽어보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²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³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⁵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⁶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⁷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1-7).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간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뭔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물리적으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음식을 먹어야 생물학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의 법과 도덕에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일탈의 삶을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 법적,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 사실 대놓고 법과 도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매일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사는 데 너무 바빠서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지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죽은 상태라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몸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속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더 정확히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다. 그렇기에 세상의 원리에 지배 당하던 우리의 옛자아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선언한다 (갈5:24).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렇기에 더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단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영에 속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에게나 새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되살아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면의 욕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몸으로 체포되어 재판관을 받고 있어도 그를 재판하는 권력자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재판하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한 말을 상기해 보자.

‘²⁸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²⁹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행 26:28-29).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부산물로 명예와 권력을 구하고, 건강과 부를 갈구하고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영에 속한 자라 불리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이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영에 속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다. 신앙 생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영에 속한 자라 자처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싶어 살아갑니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정말 영에 속한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진 자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9~11)

- ¹² Ἄρα οὖν,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ὀφείλεται ἕσμεν (우리가 빛진 자들이다)
οὐ τῆ σαρκὶ τοῦ κατὰ σάρκα ζῆν,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육신에게 [빛진 것이] 아니다)
- ¹³ εἰ γὰρ κατὰ σάρκα ζῆτε,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육신을 따라 살면)
μέλλετε ἀποθνήσκειν· (당신들은 죽게 될 것이다)
εἰ δὲ πνεύματι τὰς πράξεις τοῦ σώματος θανατοῦτε, (그러나 만약 영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ζήσετε.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다.)
- ¹⁴ ὅσοι γὰρ πνεύματι θεοῦ ἔχονται,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οὗτοι υἱοὶ θεοῦ εἰσιν.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 모두는 빛진 자들이다.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 자신을 복음에 빛진 자라 했다. 그는 그 빛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빛진 자들이라고 선언한다. 헬라어 단어 오페이레테스 (ὀφειλέτης)는 돈이나 물건을 빌린 채무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빌린 적이 없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채무자가 맞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은 결코 금전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빛을 지고 있는 걸까?

여기엔 속량의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구원을 단지 속죄의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아 온 사람들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죄도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소위 모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늘 곁에 계신다고 믿어왔다. 복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도 덜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앙인들은 ‘빛진 자’라고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자신이 왜 채무자인지, 무슨 빛을 졌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그 빛을 갚을 생각도 안한다.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을 해갈 뿐이다.

우리가 왜 채무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실존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하나님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지식이 객관적인 실재를 바꿀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때에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 숙제들을 평가받아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동일한 숙제를 안게 되며 일생을 그 과제를 수행하다 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소위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내면의 율법으로 그 과제를 수행한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한 숙제는 인간들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인간은 율법이라는 굴레를 쓴 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신이 죽는 길 밖에 없다고 한다. 인간의 육체는 죄된 욕망의 숙주가 되어 죄에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육신에 기생하는 죄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는 로마서 7장에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

“¹⁹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²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²¹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²²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²³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²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19-24).

이처럼 사망의 몸에 갇혀 움짱달짝 못하는 나(self)를 누가 해방하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입혀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죄와의 지리한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해방을 마냥 만끽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모두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 빛은 예수님 그분의 가치만큼이다.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가 진 빛의 무게인 셈이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빛진 자가 아니라 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지 방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의를 쌓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적으로 방탕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의는 늘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외면을 열심히 치장하는 모든 행위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의의 원천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율법의 노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 엄청난 빛을 진 사람이다. 그 빛은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빛이다. 그 빛을 묵상해보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댓가로 우리는 어떤 빛을 지게 되었습니까? 빛진 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8:12~14)

- ¹² Ἄρα οὖν, ἀδελφοί, (그러므로 형제들아)
ὀφείλεται ἕσμεν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οὐ τῆ σαρκὶ τοῦ κατὰ σάρκα ζῆν,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 ¹³ εἰ γὰρ κατὰ σάρκα ζῆτε,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육신을 따라 살면)
μέλλετε ἀποθνήσκειν· (당신들은 죽게 될 것이다)
εἰ δὲ πνεύματι τὰς πράξεις τοῦ σώματος θανατοῦτε, (그러나 만약 영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ζήσετε.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다.)
- ¹⁴ ὅσοι γὰρ πνεύματι θεοῦ ἄγονται,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οὗτοι υἱοὶ θεοῦ εἰσιν.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 삶은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삶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는 삶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할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일신의 영달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며 살던 세리일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할까?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사스런 삶을 살았던 부자일까? 아니면 그집 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근근이 삶을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일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필요로 했을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깨닫고 스스로 남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까? 아니면 장님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구걸하며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산 소경 청년일까?

누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의로움, 축복, 빛 등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 인간들에게 덧입혀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한 번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노라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세상을 등진 채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도승 같은 사람도 모두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인간의 눈에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성과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성취한 의로움보다 훨씬 더 가치있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의를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열매이고, 그런 노력 자체가 육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숨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 놓은 방식으로 그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13 절에서 바울은 그 지위를 획득하는 길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이라 선언한다. 영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가 임의로 동원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인격체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이들은 성령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

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램프 속에서 나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화를 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하게 성령님과 나 둘 중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먼저는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고민하고 그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얽매어 살아가는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단지 죄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판단하던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어 그것을 이뤄내려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선 이웃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이웃 사랑은 구원 받고 천국으로 가는 선행 조건이 아니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이끌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의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이면 곱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며, 소득의 십분의 일을 헌금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뿌듯해하고 남들에게 자랑한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이웃 사랑에 불과하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사랑을 남들에게 자랑하지도 않는다.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성령에 인도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아바 아버지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8:15)

¹⁵ οὐ γὰρ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δουλείας πάλιν εἰς φόβον
(왜냐하면 당신들은 다시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ἀλλ'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υἰοθεσίας (당신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ἐν ᾧ κρᾶζομεν· (우리가 그 안에서 외친다)
αββα ὁ πατήρ. (아바 아버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단언한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은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들의 눈까지 피하고 숨고 싶어 하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두려움의 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려움의 영은 사탄의 영이 아니다. 바울은 이를 종의 영이라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6 장부터 지속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죄에 종노릇 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우리 내면에 자리잡은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한다. 그 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 율법 앞에 자신의 행위를 평가받는다. 그런데 그 행위가 율법의 요구에 못 미치게 되면 죄의식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자신이 율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수치심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율법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렇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숙제를 주고 인간들은 율법으로 각자의 숙제를 평가받는다. 그것이 율법에 종 노릇하는 삶이다. 이런 삶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과도 같다. 수차례 든 예지만 아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를 위해 에덴에 정원을 따로 준비하셨다. 그 정원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 특별한 나무를 준비해 두셨다. 생명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나무였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나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그 순간 아담에게 법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필경 그는 그 나무를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 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 그 나무 앞에만 서면, 그리고 그 열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생각났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그저 그런 나무 중의 하나였을텐데, 그 경고로 인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나무는 아담의 내면에 매우 특별한 나무로 각인되었다. 먹지 말라고 한 특별한 명령 그 자체가 이미 아담의 행동을 제약했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마침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운 나하스(뱀)의 말에 넘어가게 된다. 그의 말에 넘어갔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을 알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는 부랴부랴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그것을 열기설기 엮어서 허리에 둘렀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모든 수치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내면의 수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때마침 하나님의 기척이 느껴졌다. 아담은 너무 두

려운 나머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을 향한 수치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아담이 겪은 부정적인 감정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아예 그 율법이 하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 편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율법에 갇혀 율법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일종의 감정적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걸 의미한다 (롬 14:17 참조).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다.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시며, 눈썹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라치면 여지없이 분노하고 혼을 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불행이 오면 반사적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지 돌아본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옳이 그랬다. 옳은 행위가 완전하여 세상에서 그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았을 정도다. 그런 옳이 고난에 처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¹⁷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¹⁸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 이까 ¹⁹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²⁰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욥 7:17-20).

옳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의로움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옳이 그렇게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아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웠다. 옳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 당연히 누림도 없었다. 온통 그를 지배한 것은 율법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늘 회초리를 든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일 뿐이다. 우리 내면에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양자의 영’이 작동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어색함이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다. 삶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품 속에서 지친 삶을 내려 놓고 폭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바 아버지’ 그분은 힘든 삶, 율법의 고통을 피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간 우리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 덕분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당신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통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8:16~17)

- ¹⁶ αὐτὸ τὸ πνεῦμα συμμαρτυρεῖ τῷ πνεύματι ἡμῶν (그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함께 증거한다)
ὅτι ἐσμὲν τέκνα θεοῦ.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 ¹⁷ εἰ δὲ τέκνα, καὶ κληρονόμοι (만약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라면)
κληρονόμοι μὲν θεοῦ,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συγκληρονόμοι δὲ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다)
εἴτερ συμπάσχομεν (만약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ἵνα καὶ συνδοξασθῶμεν. (우리가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가?” 필자가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후 어느 성도가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받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한 걸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느끼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난이 동일한 것일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세상에는 좀처럼 고난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가진 것처럼 고통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삶 자체가 행복이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을 이해하긴 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데도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과거 수도승들처럼 금식을 하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 일부러라도 고난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한 고난은 살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아픈 것도 고통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고난이다. 2014년 4월 16일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슬픈 날이다. 뭐 좋은 일이라고 괜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말하는 분들은 단언컨대 그날의 쓰라린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다. 뱃머리만 낚긴 채 가리앉은 세월호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했다. 안타까움, 분노, 슬픔... 그 사건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봤을 것이다. “나는 정말 고난을 몰라요. 늘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그 순간만은 거짓이어야 했다. 뻔히 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다. 대개 고통은 일종의 무력감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을 세월호에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만큼 세월호가 가져다 준 고통이 엄청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세월호다. 한껏 즐거움과 기대에 들떠 다가올 재앙엔 눈 멀어 있다가 막상 재앙이 닥치고 배가 가리앉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고통으로 부르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엔 귀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세상의 즐거움으로 허기를 채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쯤은 가볍게 여기는 걸 당연시 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들은 결핍에서 벗어나려 애를 쓴다. 어떤 이들은 그 모든 욕망의 웅덩이를 빠져나온 달관한 사람처럼 멀찍이 서서 이수라같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한다. 사실 성경은 불타는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세상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 상태에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다.

다시 고통의 문제로 돌아가보자.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가?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일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매년 예루살렘을 찾으셨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명절 (민족적 축제일 또는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공생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인 셈이다.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눅 19:38).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왕으로 대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앞으로 멸망당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나아가 무자비하게 죽임 당할 유대 민족을 생각하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아 볼 눈이 없는 백성들을 보고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겠는가? 당시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⁴¹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⁴³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 19:41-44).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 당신 눈엔 이 세상이 기울어져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유람선처럼 보이지 않는가? 만약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그 배에 올라 타 있는 승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유람선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모르고 있다. 마치 부푼 꿈을 안고 세월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문제, 지식 문제, 건강 문제 같은 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에 맞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룩한 고통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고난과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드러날 영광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8:18)

¹⁸ Λογίζομαι γὰρ (왜냐하면 나는 여긴다)

ὅτι οὐκ ἄξια τὰ παθήματα τοῦ νῦν καιροῦ (현재의 고난은 비견될 수 없다)

πρὸς τὴν μέλλουσαν δόξαν ὑποκαλυφθῆναι εἰς ἡμᾶς. (우리들에게 장차 드러날 영광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 의학 기술 덕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날이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다. 불과 5 여 년 전 만 하더라도 회갑을 넘기면 장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 년도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58.6 세였다 (여자 65.5 세). 그런데 지난 2015 년도에는 78.5 세(여자는 85.1 세)로 늘어났다. 45 년만에 평균 수명이 약 20 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오랜 갈망이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것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과연 반가운 소식일까?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은 과연 희소식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꿈꾼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런 모순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각 사람에게 침노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 하-21).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니 둘 사이에 대화가 될 리 만무하다.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 안에 구현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취급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행 17:6)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요즈음 말로 하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존 로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였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로마인들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행해졌던 각종 전통을 무시하고 그들의만의 사회를 만들었다. 모임을 가질 때에는 노예와 주인이 따로 없었고, 인종도 구별하지 않았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들이 한 자리에 자연스럽게 모여 앉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여기며 모든 것을 통용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당시 로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극단적 범죄나 다름 없었다 (쿠르트 디트리히 슈미트, [살아있는 교

회사, p95 를 참조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시비거리가 되었다. 이런 삶은 결국 박해를 불러왔다. 로마 제국은 주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박해를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선언에서 ‘장차 드러날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헬리어로 ‘텐 멜로우산 독싼 아포칼뤼테나이’(τὴν μέλλουσαν δόξαν ἀποκαλυφθῆναι)다. ‘멜로우산’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기다리던 열차가 지금 플랫폼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아직 차가 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차가 역으로 들어섰으니 이제 곧 문이 열리고 그 지하철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 일이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광에 앞서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마치 추운 겨울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기차역에서 추위에 떨면서 다가오는 열차를 바로보고 있는 형국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들의 예를 다시 보자.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주의에 빠져 정작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놀리거나 왕따를 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로마서 8 장 18 절 말씀은 불필요한 구절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진정한 고난은 육체적 질병이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비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자신이 이미 존귀한 존재인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다 (시 49:20 참조).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어찌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내면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기뻐하는 존재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현재 당신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장차 드러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영광을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